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참된 광복은 언제 올것인가

俞 錫 濬 長老 (京都教会)

어느덧 25回、光復節을 맞이하였다 어찌그리歲月은 빠른가? 1945年8月6日 내가 살고 있는 太秦地区 警察署特高係刑事 丁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何か 変わったものないか) 하고 문턱에 걸쳐 앉아 무서운 눈초리로 훑어 보든 그 날이 어제인듯 하나 벌써 25年前일이 었고 朝鮮人은 教育을 받으면 建邦지게된다는 秋霜 같은 소리로 抑圧 하던 그 音聲이 아직도 귀에 찼는것만 그 것도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1946年8月15日、關西地方 우리 敎友가 汽車、電車를 独占하고 춤을 추며 須磨海邊에서 뛰고 놀던 그 시절이 오늘날은 그림자도 없고 그 기쁨은 다 어디로갔는가? 하는 회상을 하되 오늘의 現實、25年の 光復節을 祝賀 하는 心情은 참으로 光復節을 마음 깊이 感謝感激 하는가? 어찌지 마음속 한 구석에 슬픔을 느끼며 긴 한숨을 내뿜지 않을수없다 怨恨의 38度線은 누가 생각이나 했든가 6.25動亂으로 骨肉相爭은 어느 누가 願했든가? 4,000万 겨레가

말도 같고 풍습도 같고 먹는것도 같은데 왜? 피차가 원수 시하지 않으면 안될 오늘의 光復節이 참된 光復節일까?

三千里錦繡江山 높은 산 맑은 물 그 모두가 나의 祖国江山이며 잘났든못났든 4,000万 民族은 나의 親戚이며 同胞이건만 有形의 38度線과 無形의 38度線이 가로놓여 가도 오도 못할 뿐 共產獨裁 惡毒한 治下에서 呻吟하는 저 북쪽의 兄弟姊妹를 생각할때 참된 光復은 언제 올것인가 하는 애수의 쓰라린 心情을 하나님앞에 퍼놓지 않을수 없다 黑雲이 내 江山에서 完全消滅되는 참된 빛이 어서 오소서 하는 祈願을 제25回 光復節을 맞이하는 自由民의 哀願이며 참된 自由、참된 獨立、참된 自主、참된 平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의 光復節을 맞이하는 그날이 언제 올것인가? 觀念이고 理想으로 만이 思慕할것이 아니고 우리의 行動과 生活에서 하나 하나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覺悟를 다짐 하고저 한다

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조직된 교회 질서잡힌 교직제도 교리주의에 치중한 때요 오늘의 영적자유에 의한 자연스러운 윤리생활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와 회합사회의 여성관에 대하여는 형언하기 어려운 야만의 시기였읍니다 기독교는 노예에 가까운 여인을 해방하였읍니다 그러나 해방된 여성들이 그 자유를 잘못 이용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교회는 지혜로운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유를 지혜롭게 선용함으로써 여성들은 바른 지위를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말씀은 어느때를 막론하고 이 착잡한 현실속에서 신앙인의 견실한 교회생활

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없지 못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합회뿐 아니라 각 지방회와 지교회의 임원으로 택함을 받은 이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앞에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뜻 자녀들을 정성 다해 섬기리라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만이 모든것을 견디어 잘 감당해 갈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택한 여러 회원들은 다 같이 한지체된것을 인식하고 임원들이 잘하도록 서로 협력하며 그릇된 점이 보일때는 내뿜는부분에 병이 난듯 같이 괴로워하며 위하여 기도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엮여진 이 모임이 교회안에서 남성들보다 더욱 가능하고 풍부한 소질과 개성을 적절한 부문에서 품위있게 살리면서 날로 새롭게 무한히 자라나기를.....이말에 새삼 열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로 말미암아 모든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브리1:1~2)。인간에게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들을 나타내는 용어 즉 전쟁 사로잡힘 정복 폐복 포로등의 말 가운데 싸여있다 또 하나님은 정치적술책 전쟁의복무 사회적동란 각종의 혁명등을 통해서 말씀하고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가 들던것과 같은 가느른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런말씀이 곧 역사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구약성서이며 저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때는 언제든지 그말씀을 통해서 향하신다 요한복음1장에서는 세상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하나님 의말씀은 우리들 사이에 살았고 신간의 연속가운데서 죽었던 사건이되었다 발언하신 하나님의말씀은 결코 헛되지 도라오진 않는다 성서는 모든사건으로 넘쳐있다 하나님은 그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모든 사건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못한다 예를들면 마태복음25장에 질문하는 자람들을 볼수있다 「주여 우리가 어느때에 주의주리신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때에 나그네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것을 옷 입혔나이까 어느때에 병든 신것이나 옥에갇히신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형제중에 지극히작은자 하나에게한것이 곧내게한것이니라」(마25:37~40) 이와같이 마태는 인간의부지중에 하나님은 여러가지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하는것이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떡을메고축사할때까지 저희와 함께 걸가시던분이 예수였는줄몰랐든것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곧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하였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R. 볼트만이 지적한바와 같이 (2면에 계속)

복 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堺 教会 牧 師 尹 宗 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도들의 철저하지 못한 신앙생활때문에 그힘을 잃어 버린시대에 살고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세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면 많은사람들이 왜 교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그이유를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혁명시대에 살고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모든 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대결하는가에따라 역사는 변해갈것이라고 한다 쿠-바에서 Castro운동이 이러났을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그운동에 참여했다가 그운동이 진전함에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해 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운동의 집권자가 되고 만었다고 한다 만일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좌후까지 그운동에 책임있게 참여했다라면 쿠-바의 역사는 오늘날 그것과는 전연

달라졌을것이다 오늘 우리에게있어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복음"혹은"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며 믿고있는가 에있다 흔히 듣는말은 그리스도인은 만물이 라고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통해서 "말씀"(Logos)이란 무슨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때 또하나의 새로운질문에 부딪친다 하나님의말씀은 이야기가 아니고 행위이다 하나님의말씀이 발언될때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이러나는것이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받았으며 또집관을받으며 치유를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부분과 여러모양으로 우리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모든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아들을 만유의후사로 세우시고 또저

여전도회 9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임원 선거에 즈음하여

디모데전서 2:8~3:13

이말에는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의 총회와대부러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의 할 것은 여전도회가 일반사회단체와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원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임원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모데서를 이말의 우리영혼의 양식으로 삼고자 모두 열심히 읽고 생각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직분말을 이를 명임하는 일이나 선택에 대한 방식보다도 그의 사람됨 크리스찬인격의 특징을 열거하였읍니다 진정으로 힘있는 봉사활동이란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과 생활태도에서 오기때문입니다 각각 내가 맡은 직책이란 나의 일상 사생활(가족과 사회~이웃관계)과 촌시라도 분리될수 없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쓰여진 시



民族教育에 協力을 要望

京都信明学校

敬愛하는 同胞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70年을 맞이하여 同胞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在日同胞들이 處해있는 立場과 將次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充分히 相議하고, 많은 指導鞭撻을 받아야 할 것이요나, 바쁨에 쫓달리어 이렇게 紙面을 빌려 인사를 드리는 欠禮를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들이
奉職 하고 있는 京都信明
學校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따뜻한 理解와 協助를 拜
讀코져 합니다。

敬愛하는 同胞 여러분,
우리들은 現在 祖国을 멀리 떠나 日本이라는 特殊한 歷史的過去를 가진 異國에서 生活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라를 빼앗겨
지난날, 우리들이 體驗해
야만 했던 피눈물나는 슬
픔과 骨髓에 사무쳐던 괴
로움을 回顧 해볼때、現在
의 生活에만 만족하고 있
을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
다. 우리들이 정든 故郷을
등지고 사랑하는 父母兄弟
들과 離別을 해야만 했던
것도、異國의 하늘 아래서
찬바람에 시달리고、民
族的差別에 부대끼며 괴로
워 해야만 했던것도 모두
땀땀하고 자랑스런 自身の
祖國을 가지지 못했기 때
문에 甘愛해야만 했던 슬
픔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할때 현재의
우리는 비록 넉넉치 못하
고 分斷된 悲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 자
신의 獨立된 祖國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貴重한 자랑스러운 일인가
를 새삼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同胞 여러분, 우리들은
現在外國에서 살고 있고, 또
그간의 눈물겨운 努力의
當然한 代價로서 어느 程
度經濟 的으로 安定된 生
活을 營為 할수 있게 된
것은 確된 多幸한 일입니
다. 그러나 生活이 安定
될수록 우우리는 個人的利
己主義에 흐르기 쉽고, 더
욱 外國에서 태어나 成長
해온 우리들의 子孫들은
直接 祖國을 보지 못했거

나 혹은 祖国을 理解 하
는 데 不足함이 적지 않습
니다. 또한 經濟的으로 安
定 된 現在의 生活은 祖
國의 重要性和 그 存在意
義를 忘却케 할 危險性 조
차 없지 않다고 생각 됩
니다. 더욱 日本當局의 출
기찬 同化政策은 如斯한
傾向을 助長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諸般와件을 考慮 해
볼 때 이 時点에서 우리들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
의 子孫들을 自身の 祖国
을 모르는 精神的流浪民으로
만들 危險性 조차 없지
않음을 否認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敬愛하는 同胞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날 나라 없는 백성의 悲哀의 苦杯를 甘受 해야 했지만, 이제 獨立된 祖國이 嚴然히 있는 데, 우리들의 子孫들도 하여금 祖國을 忘却한 流浪民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痛嘆했던 그 많은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우리들의 後孫들이 몇 몇한 自主獨立의 國民으로서 子孫萬代를 通해 값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祖國을 理解시키고, 民族의 自主性을 確立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時急하고 重大한 문제라고 痛感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重要한 民族自主性을 確立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祖國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시켜야겠고, 祖國을 認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입히고 우리의 찬란한 文化의 傳統을 理解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 해야 할 것입니다.

本校는 일찍부터 이 점을
重要視하고, 이 貴重한 使
命을 遂行하기 위하여 25
年前에 이 땅에서 創設
되었습니다. 25年이라는 결
코 짧은 期間 동안
力量不足과 諸般与件의 不
備로 가지 各색의 試練도
적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침략해도 군세게 자라나는
路邊雜草처럼, 우리 신명학
교는 逆境에 屈하지 않고,
民族教育이란 重大한 課題
를 遂行하기 위하여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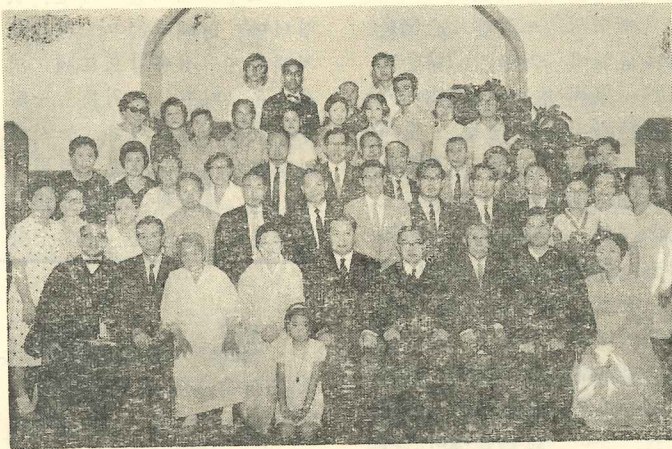
차례 努力해 왔읍니다. 그
간 信明學校의 문을 거쳐
간 同胞는 무려 3,000여명
에 達하고, 卒業生들을 우
리 僑胞社會에서 指導의 役
割을 훌륭히 遂行하고 있
읍니다. 이러한 結果는 여
러분들의 變함 없는 溫情
과 協助의 德分인줄 믿고,
마음깊이 感謝하고 있읍니
다.

今般 우리 信明學校는
歷史的、民族的、要望에 應
하고 여러분들의 恩惠에
報答하기 위하여 機構를 大

幅改編하고、教育內容을一新하여 飛躍을 위한 새출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重要할것은 우리 信明學校自体가 아니고、여러분 各者 各者가 民族教育의 重要性을再認識하고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들을 萬般의 準備를 가추고、여러분 子弟들이 信明學校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를 苦待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배우고、우리의 歷史를 배우고、우리의 民族音樂을 알고 싶은 분은 性別、年令、國籍을 不問하고 누구든지 망서리지 마시고 우리 信明學校를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來校를 기다리며 歡迎 하겠습니다。

京都信明学校
校長 유 석 준
教職員一同

李成基長老將立



지난 7月26日、関西地方會
의 지시에 따라 在日大韓
基督教敎團教會에서는 관서지
방 여러교우들을 모시고
정인수목사의 사회하 각
원치목사의 「죽도록충성하
라」는 뜻 있는 설교로 이
성기장노의 장일식이 성
대히 거행되었다 堺교회
로서는 종전후 처음으로
모시게된 장노 장일식인
만큼 새로운 기쁨을 맛보
게 되었다 이성기 장노는
일찍이 소년시절에 한국에
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 일본에 건너와 현재까
지 거주하고 계시다한다
그동안 初芝商業學校를 졸
업한후 신학교를 가디는
뜻을 품고 있든차 종전을
맞이하였고 그후 사업과
기타사정에 따라 신학교를
가지못했다가 수년후 다시
기회를 얻어 大阪基督教學
院大學에서 공부하여 신학
과를 졸업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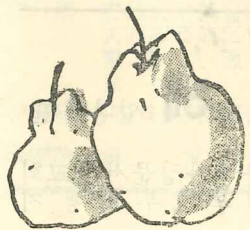
이 장노의 신앙 경력으로
는 일본에 오신후 곧 堺
市内에 있는 日本基督教会

에 일 요 학 교 를 착 실 이 다 니
다 가 20才 에 조 선 예 수 교
堺 敎 회 에 고 려 위 목 사 에 게
서 세 례 를 받 고 고 등 학 교
를 다 니 면 서 학 생 시 대 부 터
堺 敎 회 집 사 로 선 출 받 아
敎 회 서 기 로 봉 사 하 기 시 작
하 여 장 노 안 수 받 던 날 까 지
30수 년 간 집 사 로 충 성 을
다 하 셧 다 가 족 에 는 노 령 에
계 시 는 어 머 니 부 인 황 필 순
집 사 그 리 고 장 남 은 규 (주 일 학 교 선 생) 인 데 아 들
들 딸 하 나 로 이 상 적 가 정
이 다 이 성 기 장 노 는 혈
재 재 일 대 한 민 국 거 루 민 단
堺 支 部 부 단 장 으 르 지 역 사
회 에 서 도 신 임 을 받 고 계
심 으 로 앞 으 로 敎 회 와 지
역 사 회 의 중 간 역 할 로 좋 은
봉 사 가 기 대 되 리 라 고 한 다

1면 부터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신것은 무엇
이든지 행하여지고 있으
며 저가 행하는것은 무엇
이든지 말씀하신것이다」라

고하였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있어서의 언행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설화·금언·종교적격언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자신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사렛 예수안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평화(shalom)이라하겠다. 우리는 이 "shalom"을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결코 완전한 번역이라고 할수없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shalom•**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평화기쁨·인간조혜주의 사회적조화·고상한질서와 정의의상태를 말하고있다. **•shalom•**은 부유와 건강·친절까지 포함하고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shalom•**이란 공동체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그무엇이었다. 그러나 이 **•shalom•**은 하나님만이 제공할수있는 것이다. 아무도 사람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만드려낼수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shalom•**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새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shalom•**을 도래시키는 분이시며 **•shalom•**의 임금이시다. 이사야는 이에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땅을 창조하나니 이전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것이라……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열매를 먹을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것이며 그들의 재배한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력 한자가 그손으로 일한것을 길이누릴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갠했되 지 앓겠고 그들의 생산한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라」(이사야65:17, 21~23a) 이것이 곧 **•shalom•**이다. 그러므로 **•shalom•**은 전쟁의 휘적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의의질서이다. 예언자 미가는 **•shalom•**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각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아래와 자기무화과나무 아래앉을 것이다」(미가4:4) 이것은 사람들이 그칼을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쳐서 낫을 만들것이며 아니라와 저나라가 다시는 칼을들고 서로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shalom•**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계속)



〈福音〉世のための神の言

堺教会牧師 尹 宗 銀

私たちは、キリストの福音が、それを信じる者の不徹底な生活によって、その力を失いつつある時代に生きている。しかしながら神は、私たちが生活の場としている、この世にあって、今も働いておられる。神がこの世に今なお、働いておられるとするならば、何故多くの人が、教会は無能であると考えているその理由を、知らねばならない。私たちは世界的に革命時代に生きている。キリスト者が、今日の革命をどのように理解しているだろうか。また、それを如何に対決するかによって歴史は変るものだといわれる。キューバにてCastro運動が起きた当初は、キリスト者が、積極的に、その運動に参加したのであったが、その運動が進展することに従って、キリスト者は挫折してしまい、共産主義者たちが、その運動の執権者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われている。もしもキューバのキリスト者たちが最後までその運動に参加していたならば、キューバの歴史は、今のそれとは全く変わっていたであろう。

今日、私たちにあって、極めて重要なのは「福音」或は「言」を如何に理解し信じるかである。よく云われるのは、キリスト者は、おしゃべりな民 (a Talkative people) だという。しかし、私たちが、聖書を通して「言」(Logos) とは、なにを意味するを知る時に、もう一つの新しい質問にそうぐうする。神の言は、談話ではなく、行為である。神の言が語られる時は、必ずなにかの事件が生じるのである。世界は神の言によって創造され、神の言によって審かれ、いやされるのである。神の言は最後に、ナザレのイエスにおいて、具体化されたのである。「神は、むかしは、いろいろな方法で、先祖たちに語られたが、この終りの時には御子によって、わたしたちに語られたのである。神は御子を万物の相続者と定め、また、御子によってもろもろの世界を造られた。」(ヘブル人への手紙1:1~2)。人間に対する神の言は事件をあらわす用語、戦争、捕囚、征服、敗北、捕虜等の用語に内包されている。また、神は、政治的政策、従軍、社会

的動乱、革命等を通して語っておられる。神は、また、エリヤが聞いたように細い声で語っておられる。このような種類の語りかけは、歴史の記録である。神の民の歴史は旧約聖書であり、かれらの歴史を通して神は、今私たちに語っておられる。神が、私たちに向ける時に、いつでも、その言を通してである。ヨハネによる福音1章に、世は言によって創造されたが、終りに、言は肉体となったと記されている。神の言は、私たちの間に生き、時の連続の中で死んでいる出来事となった。発せられた神の言は、決して、むなしく帰らない。聖書は事件で満ちている。神は、それらの事件をもって、人間に語りかけているが、人間は、諸事件の中で、神の声を認識しないのである。例えば、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に質問する人々がいる。「主よ、いつ、わたしたちは、あなたが空腹であるのを見て食物をめぐみ、かわいているのを見て飲ませましたか。いつあなたが旅人であるのを見て宿を貸し、裸なのを見て着せましたか。また、いつあなたが病気をし、獄にいたのを見て、あなたの所に参りましたか。」すると王は答えて言うであろう。「あなたがたによく言っておく。わたしの兄弟であるこれらの最も小さい者のひとりにしたのは、すなわち、わたしに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マタイは、人が知らない中に神があらゆる事件を通して、人々に語りかけているのを指摘している。エマオ途上の弟子たちは、イエスが彼らと共にパンを取り、祝福してさくまで、彼らと一緒に歩いていた方が、イエスであると認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神は、常に、このような方法で行い、語られるのである。ナザレのイエスは、人間に対する神の言であり、イエスの人格は言葉と行為が伴うのである。なぜなら、イエスはその言の通りに善き方であるから。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わたしは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と。ドイツの著名な神学者、R・ブルトマン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イエスが語られたものはなんでも行なわれており、彼が行ったものは、な

んでも、語られたものである」と。なぜなら、イエスには言行一致があったからである。それ故に、神の言は、たんなる説話、金言、宗教的格言でなく、ナザレのイエス御自身のうちにある、神の行動である。であれば、この「言」の内容はなんであろうか。ナザレのイエスにあって、人間に語られた神の言を要約すると、神のシャーロームである。私たちは、これを「平和」と訳されるが、それは適切な訳とはいえない。昔のヘブル人たちが用いたシャーローム

(Shalom)とは、私たちがいう非武装を意味するものでなく、積極的平和、よこび、人間の互恵主義、社会的調和、高尚な秩序と正義の状態である。シャーロームは、富裕、よき健康、親切等意味する。ヘブル人にとって、シャーロームはなにか共同生活を充実させるも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シャーロームは神から提供されるものである。なぜなら、それは、メシヤがもたらせる新時代の特徴であるからである。メシヤは、シャーロームをもたらせる方であり、シャーロームの王である。イザヤは、それについて次のようにしるしている。「見よ、わたしは新しい天と、新しい地とを創造する。

(つづく)

在日韓国人のための

闘争の神学 - 2 -

金 承 俊

2. 本 論

(1) 神とは？

聖書によれば、神は一切の善きものに於て無限、永遠、不変の霊で、しかも唯一絶対の自存在であるのみならず、計画し、語り、実行し給う行為の人格神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哲学によれば、絶対性と人格性とは両立するものとは見ないが、聖書に啓示された神は、全知全能に居まし、一切の創造者なる絶対者の人格者である。そして、かかる神が、人間の理解しうる範囲内に於て、その御名をもって自らを啓示しておられる。ヘブル語で神という言葉を表わすのに、次の語がある。エール、エロヒーム、エロハ、サパオン、エリオン、エセル・エヒエ、アドナイ、ヤ、ヤーウエ、シャダイ等である。そして、最初の3つは、力ある方、権力者を表わし、畏敬的存在者を示す。エリオンとシャダイは、いと高き神を、アドナイは、支配者、君を表わす。そして最も多く出てくるヤーウエ(YHWH) (アドナイと読むのが正しいと分る。)は出エジプト記3章14節に「私は有って有る者(エヘイエ アシェル エヘイエ・I AM THAT I AM)とあるようにハーヤー(有る、成る、起る)から来たるものと見て、有りて有る者(自存者)だという者や、その他、生命の賦与者、汝と共に在る者等と見る者もあるが、全体のコンテキストから、永遠に変わぬ哲学的な

自存者よりも、契約に忠実な恵み深い神と見るも多い。又、ハーハーと息を吹き出すときの息がYHWHだから生命の神だという者もある。「私は有って有る者(I AM THAT I AM)」という所を「私は生成しつつある所の生成しつつある者(I AM BECOMING THAT I AM BECOMING)」と訳している。これはなかなか面白いなあと思ったが、はてな？聖書的であるか？むしろ哲学とはびったり一致する。何故なら「ヘーゲルの「精神現象学」によれば、存在、有る等はそれのみでは意味をもったものとは見ていないからである。無を媒介として、有が自らの内の非有に直面し、動的にされてこそ有るが有の意味をもつものと見ているからである。つまり、固定的なものとは認めず、あるのは生成、成りつつある動的なものしかないと見ているからである。さて、私は、今まで述べて来たものを、生成とかという哲学的なことはさておいて、全て受け入れた上で、更に付け加えたいことは、聖書の神は、種々な属性をもっておられるが、この神は他でもない戦闘の神だといいたいのである。戦い給う神である。戦うという限り、そこには勝ち、勝利するという事が目的とならなければ意味をなさない。ツェバオースは、ツァーバー(軍隊、戦争、闘争)から来た、名詞の複数で軍勢という

意味から萬軍の主という時の萬軍の意味である。そして旧約聖書には388回出ている(単数複数共で)。そして、ラーハム(戦う)という言葉は146回出ている。例えば、「主よ、……私と戦う者と戦って下さい。(詩35:1)」、「主があなたの方の為に戦われるから、あなた方は黙していなさい。(出14:14)」、「エジプト人は言った『我々はイスラエルを離れて逃げよう。主が彼らの為にエジプト人と戦う(から)。(出14:25)』」、「先に立って行かれるあなた方の神、主は……あなたの方の為に戦われるであろう。(申1:30)」、「彼らを恐れてはならない。あなたの方の神、主があなたの方の為に戦われるからである。(申3:22)」、「あなたの方の神、主が共に行かれ、あなたの方の為に敵と戦って、あなた方を救われるからである。(申20:4)」等を見ても戦い給う神の行為が明白に示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見る時、神の似像に創造されている人間は、内的・外的な、信仰を通しての地上的闘争に、知・情・意の全体をもって全身全霊で、最も緊張感をもって戦う時こそ、最も神的存在であり、神を最高度に喜び、そこにこそ最高度の神認識が与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ある。神を神として崇めうる最高度の礼拝も讃美も、そのような中でこそ、純粹で、真実であって、一切を自らの中に包み、自らに超越しうる心になるのではなからうか？戦うという言葉には、消耗し尽くすという火のごとき意味も含む。最高度の戦いとは相手も、自らも滅し尽くす働きではなからうか？全き粉碎のあとに全く新たに創り変えられて生かされるあの「命」(ネフェシュ)こそ聖書が語り伝えている真髄ではなからうか？そしてこの闘争し給う主が、いつも主題となっている。この主の霊が激しくサムソンに臨んだ時、彼は素手で子山羊を裂くように獅を裂いた(士14:6)のである。

(つづく)



印刷局

僑文社

716-5046



聖 書

感 情 と 信 仰

ル カ 9:51 ~ 56

1. 主イエスがエルサレムへ上京する途中でサマリヤに宿るべく弟子のヨハネとヤコブをして準備するようにしたが、サマリヤの人たちは救主がサマリヤを居住地としないことで通過してエルサレムに行かれないと聞いて、イエスのための準備を拒んだので、ヤコブとヨハネは救主を迎えることを拒否するこの不信仰の町を天からの火で滅ぼそうとした(王下1:10~12)。この時に主イエスはむしろ弟子たちをしっかりとにらされた。これは一時的な感情で不信心な者を滅ぼすようなことはしてならないし、今は不信仰の言動を発しても又いつの日にか救いに入る機会が訪れて来るからである(第二ペトロ3:9)。事実、このサマリヤの人たちは主イエスの昇天後のエルサレムの大迫害の時に散らされた信徒ビリビによって福音を受け入れたのである(行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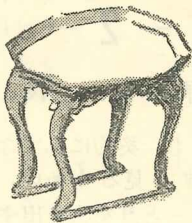
2. 感情とは意識の主観的側面をいい、主に単一感情のことであるといっている。感情は無意識の中に瞬間的に行動をおこす時が多く、殆んど怒をこめた破壊的な行動に出ることが多い。感情を抑えることによって仲間はたまたれ、平和な家庭と地域社会でのむつまじい社会生活が出来るのである。信仰はこの主観的な行動を客観的に冷静にものごとを考える余裕をもつようになる(マタイ5:44~45)。サマリヤ人とユダヤ人との間の歴史的な長い仲たがいが常に悪感情となって現われたので、スカルの女性をしてイエスと

の会話を不思議に思わしめたし、(ヨハネ4:9)主イエスの宿をつくるのも拒んだのであるが、主イエスは信仰によってそのようなことをこえて神の意志による交りを回復することが出来た(ヨハネ4:20)。

3. 主イエスはゲッセマネの祈りから降りて来られた時に主イエスを捕えようとするものに対してペテロは悪感情で彼の耳を切ったが、主イエスは剣をもつものは剣によって亡びるといわれて彼の耳を元通りに治してあげた(太26:51~53、ルカ22:51)。自分を裏

切るユダに対しても食事の席に共にいても感情的にならずに自分が裏切られ十字架にかかるが主の栄光のためであり、万民の救いのためであるといわれた(ヨハネ13:31)。ペテロは石で打ち殺されながらも彼らのために祈るこの信仰は常に感情に勝った信仰の行為である(行7:60)。私たちも瞬間的感情の衝動を押えて信仰に基いた救いと自己反省と神の意志を求める生活をしよう(ヘブル12:1~2)。

(金 元治 西成教会 牧師)



韓 国 旅 日 記

- 5 -

吉 田 源 治 郎

私は韓国では、未婚の男女が腕を組んで街路を話歩する姿をほとんど見なかった。ソウルでも、そうした風景は目につかなかった。ただ一組の男女が公園で腕を組んでいるのが目についた位であった。

韓国の町々では、ほとんどの看板がハングルに書き換えられていた。同国の英字新聞によると、それにもいろいろと異議があり、せめて英語を使用している程度だけでも漢字を残しておいてほしい、という希望が述べられていた。1970年からは、ハングル一色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私はハングルの新約聖書、讃美歌を頂いた。何とかして読みたいと願っているが、容易でない。その文法は日本文と

類似しているし、英語などの発音もそのまま移せるとのことだ。私は英韓辞書を手に入れて努力しているが中々むずかしい。ようやくエス・サラ・ハムソンを歌い、ヨルブ・カムサ・ハムニダと片ことが言える程度なのだ。

韓国の若い女性が立派な刺繍をされるのを見て、私はその技術の優秀さを高く評価している。林牧師の長女は学校の教師であるが、私に手製のテーブル・クロスなど二枚を贈って下さった。それには美しい刺繍がしてあった。

私は大邱では金和秀さんの啓明大学保育科幼稚園を見学し、大田では大田保育初級大学(李善姫学長)を、ソウルでは柳慶孫氏のスンナン幼稚

園を、光州ではワールド・ヴィジョン支援の幼児院・女子育児院などを見たとし、大邱の社会事業大学、東山病院(キリスト教系)などを訪ねた。そのあるものでは、社会事業について講演し、宣教する機会を与えられた。総じてミッション系のものは、環境といい建物といい堂々たるものであった。(前記の金さん、李さん、柳さんは1969年11月に東京で開催の第一回東南アジア・キリスト教保育者協議会の参加者)

もし私がこの度の旅行を釜山からでなく、ソウル特別市から始めていたとしたら到底、伝道などはできなかったであろう。あのバゴダ公園で見た10面の壁画は日本人である私にとって到底正視できるものではなかったし、非常なショックであった。

私は済州島で一人のメソヂスト教会の牧師に英語で語りかけられ、日本の36年間の虐政を迫められた。また光州市の公園に建てられている記念碑を示され、低頭平身せざるを得なかった。

それもこれもキリストなき神なき日本の所業であったと思う。在日韓国教会の兄弟姉妹に私は訴える。日本社会のキリスト化のために諸君の祈りを私は期待すると。私もまた余生を捧げて伝道奉仕のために一増の努力をしたいと思う。

私は今更のごとく空あく迄も青く、空気あく迄も清澄な韓国の旅を思い出して、感懐さまである。

(私の訪韓は、1968年10月から11月にかけて二週間に亘って行われたことを附記しておく)

筆者は日本キリスト教団西宮一麦教会、今津二葉教会牧師、社会福祉法人イエス団保育コンサルタント

화 해 일본어판

한국가정문서선교회
일본지부 발행지

동포가정 방문할때 백포함
시다 신앙지도, 사회문제,
우리를 인권문제 등을 다르고
있으며 각처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부20원 교회별로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東大阪市南莊町9-18
枚岡教会内

和 解 (日本語版)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発行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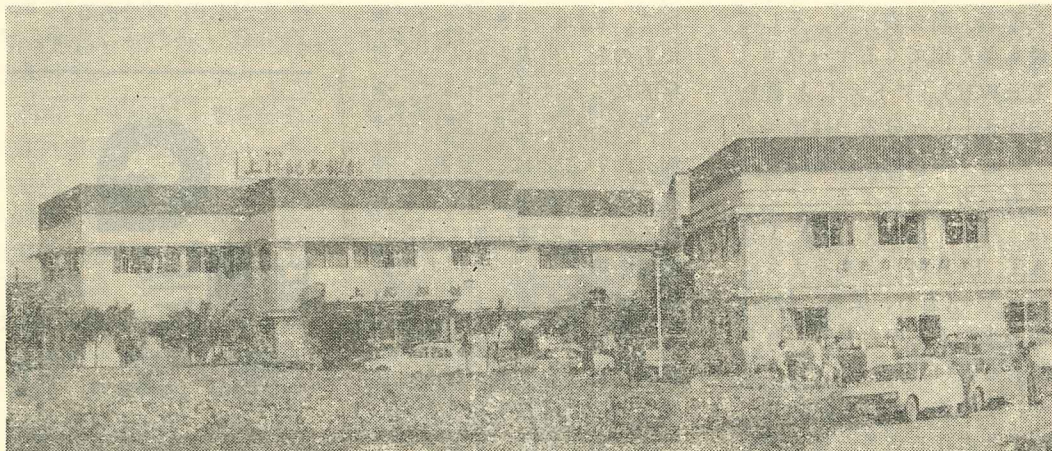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権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
一部20円で申込んで下さい。

東大阪市南莊町9-18
枚岡教会内

印刷는

僑 文 社

7 1 6 - 5 0 4 6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 曾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